

東 · 亞 · 文 · 化 · 55

## 爲피동문에 대한 폴리블랭크식 이해의 검토

이길산



## 爲피동문에 대한 풀리블랭크식 이해의 검토\*

이길산\*\*

0. 본고에서는 소위 爲피동문에 대해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sup>1)</sup>에서 제시되고 있는 풀리블랭크의 견해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음미하고자 한다. 爲피동문이란 *Outline*의 96번 예문 止將爲三軍獲이나 98번 예문 明者唯爲之使처럼 ‘피동자 P + 爲 + 행위자 A + 피동으로 이해되는 동사 Vp’<sup>2)</sup>의 구조를 띤 것이다. *Outline*의 36쪽에서 38쪽에 걸친 爲피동문에 대한 풀리블랭크의 설명은 ‘고전중국어의 爲피동문을 여격접어문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압축될 수 있다. 이는 곧 다음 주장들을 함축한다. 1) 爲는 전치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2) 동사 爲는 ‘하다’ 내지 이와 관련한 의미가 아니라 ‘되다’ 내지 이와 관련한 의미이

\* 본고는 중국고문법연구(2017년 1학기, 백은희 교수님)에 기말보고서로 제출했던 것이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1) Edwin G. Pulleyblank,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95.

이에 대한 우리말번역이 존재한다: 에드윈 풀리블랭크 지음, 양세욱 옮김, 『고전중국어 문법 강의』, 궁리, 2005.

이하에서 전자는 *Outline*으로 또 후자는 『강의』로 각각 약칭하겠다.

2) 이하에서는 爲피동문의 피동자는 P로, 행위자는 A로, 피동으로 이해되는 동사는 Vp로 각각 약칭하겠다.

다. 즉 계사이다. 3) A는 爲한테는 간접목적어이고 Vp한테는 행위자이다. 즉 여격의 겹어이다. 4) A는 爲의 간접목적어이므로 후행하는 Vp를 직접 한정해주는 소유격으로 이해될 수 없다.

爲피동문이 여격겹어문의 일종임을 주장하는 폴리블랭크의 전체적인 입증 전략은 크게 간접적-소거적 측면과 직접적-적극적 측면으로 나뉜다. 한편에서 그는 1)과 4)의 근거를 내보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 즉 爲가 전치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爲수동문의 爲가 전통적으로 거성이 아닌 평성으로 읽혔다는 음운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A가 소유격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해당 명사를 대체하는 대명사가 소유격 其가 아니라 목적격 之라는 통사적 소견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에서 3행동사 爲가 포함된 문장과 爲피동문 사이에 모종의 형태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시도를 통해 3)을 성립시키려 한다. 그리고 2)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두 경로 중 하나만 성공적이더라도 爲피동문을 여격겹어문으로 읽자는 그의 제안은 상당 수준의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爲피동문에 대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 먼저 1)에서는 爲피동문이 여격겹어문이라는 주장이 과연 무슨 뜻인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그의 소거 전략이 성공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2)에서는 爲가 전치사가 아니라고 보는 음운학적 주장을 검토한다. 이에 더해 爲를 전치사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몇몇 통사적 현상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한다. 나아가 3)에서는 爲피동문의 A를 대체하는 대명사가 단지 목적격 之라는 통사적 소견에 반례를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반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여기까지가 간접적-소거적 접근법에 대한 검토이다. 4)에서는 爲피동문을 여격겹어문으로 간주할 때 특히 해명이 잘 안되는 지점을 간접목적어의 의미역 할당으로 특정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가

직접적-적극적 접근에 대한 검토에 해당한다. 그리고 5.에서는 먼저 폴리블랭크가 그리고 있는 爲피동문의 문법화과정을 재구성해보고 거기에 내재된 문제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그와는 다른 양상의 문법화과정을 그려봄으로써 외재적인 비판을 시도한다.

1. 앞서 爲피동문이 ‘P + 爲 + A + Vp’의 구조를 띤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구문에는 다양한 변이형태가 있다. 주어 위치의 P가 생략되는 것은 고전중국어의 일반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sup>3)</sup> 그렇더라도 A의 생략 여부 및 A와 Vp 사이의 所의 삽입 여부만 따져도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여기까지가 *Outline*의 36쪽~38쪽에서 爲피동문으로 거론하는 것들이다. 여기다가, 비록 폴리블랭크는 누락하고 있으나, ‘爲 + A + 之 + Vp’라든가 ‘爲 + Vp + 於 + A’나 ‘爲 + A + 見 + Vp’ 같은 형태들까지 爲피동문의 범주에 넣어볼 수 있다.

저자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여격겸어문’이라고 할 때의 겸어구조란 이중목적어 구문 가운데 첫 번째 목적어가 본동사의 목적어인 동시에 두 번째 목적어인 절목적어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겸어구조의 전형적인 사례는 *Outline* 40쪽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소위 사역구문이다. 114번 예문 毋令水潦能入門中에서 타동사 令은 명사 水潦 및 절목적어 能入門中를 동시에 요구하며, 절목적어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앞에 위치한 水潦이다. 이러한 사역-겸어구조에서는 겸어로 규정되는 첫 번째 목적어가 본동사의 직접목적어로 이해된다.

이와 달리 爲피동문과 관련해 폴리블랭크가 제안하고 있는 여격겸어

3) *Outline* 13쪽~14쪽 참조.

4) *Outline* 40쪽 참조.

문에서는 첫 번째 목적어를 직접목적어가 아니라 간접목적어로 이해한다. 저자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將爲三軍獲과 같은 예문에서 爲는 a) 기본적으로 ‘~이 되다’의 의미인 한편 b) 두 개의 목적어 三軍과 獲을 요구하며, 이 중에 전자는 c) ‘~에게’ 및 이와 관련한 의미를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이자 d) 후자의 주어 역할을 한다.<sup>5)</sup> 즉 이 4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여격접어문이 성립하는 셈이다. 여기서 조건 a)는, 비록 저자 자신이 직접 논증을 준 적은 없지만, 다분히 직관적이기에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조건은 아니다.<sup>6)</sup> 조건 b)는 三軍을 대체하는 대명사가 오직 之이리라는 저자의 또 다른 가정에 기대고 있지만, 고전중국어 문헌에서 2항동사가 아니라 3항동사로 읽히는 爲의 존재가 보통 인정되므로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나아가 절목적어 獲의 행위자가 맥락상 三軍이 맞기에 조건 d) 역시 어렵지 않게 충족된다. 조건 c)가 남는데 이에 대해서는 4.에서 다루기로 한다.

2. 폴리블랭크식 소거법이 성공하려면, 爲피동문의 구조에 대해서 爲를 (1) 전치사로 읽거나, (2) 2항계사로 읽거나, (3) 3항계사로 읽는 이 3가지 선택지들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선택지 (1)과 선택지 (2)가 의문의 여지 없이 제거되어야 한다. 본절에서는 우선 (1)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앞서 0.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폴리블랭크는 爲피동문의 爲가 전통적인 독서음에서 거성이 아닌 평성으로 읽혔다는 음운학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爲를 전치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치사였다면 평성이 아닌 거성으로 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폴리블랭크는 자신

5) *Outline* 37쪽 참조.

6) 나아가 이후 2.4.의 논증이 성립한다면, 爲는 계사일 수 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2.4. 참조.

이 의존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를 다시 어떻게 가공하여 현재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밝히지 않은 채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양보권처럼 爲피동문의 爲를 아예 거성으로 규정하는 사례도 있기에 사태는 더 복잡해진다.<sup>7)</sup> 양보권의 독음은 爲피동문의 爲를 전치사로 읽는 그 자신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폴리블랭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동일한 논리가 고대중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는 후고전중국어 시대<sup>8)</sup>의 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爲피동문에 대한 그들의 음운 주석에 고전중국어 현상에 대한 그들 자신의 문법적 이해가 투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시대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이상, 음운적 차이에 기반한 접근은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1. 그럼에도 여전히 爲피동문의 爲가 전치사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통사적 현상 4가지를 추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고전중국어의 爲피동문의 가능한 변이형태 중에서 ‘爲 + Vp’(100번 예문: 厚者爲戮薄者見疑) 내지 ‘爲 + 所 + Vp’(101번 예문: 不者若屬皆且爲所虜)처럼 爲와 Vp

7)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92쪽 참조.

특이하게도 『한어대사전』 爲1(평성) 항목의 31번에서는 爲피동문의 爲를 ‘개사’로 규정한다. ‘~ 때문에’, ‘~을 위하여’ 등등의 의미로 우리에게 친숙한 전치사 爲는 爲2(거성) 항목의 2번에 기재되어 있다. 『漢語大詞典』 6권, 漢語大詞典出版社, 1992, 1105쪽~1113쪽 참조.

본고에서 爲 전치사설을 검토할 때의 전치사는 爲2(거성) 항목의 2번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겠다.

8) 이 시대 구분은 『강의』 19쪽(쪽번호 없음)의 일러두기에서 번역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가 A에 의해 분리되지 않은 채 등장하는 사례들에서는 소위 ‘전치사 爲’가 아무런 목적어도 없이 등장하는 셈이다. 이는 전치사의 일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전치사 以처럼 之를 수반해 以之로는 거의 쓰지 않고 그 대신 대용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sup>9)</sup> 그러나 爲는 以와는 달리 爲之의 형태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 만약 以之 대신 以를 사용하는 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以의 목적어 생략의 조건이라면, 전치사 爲는 전치사 以의 행태와도 구별된다. 나아가 이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전치사 爲의 대명사 목적어 생략은 단지 爲피동문의 경우에만 발생하기에 단지 애드호크(ad hoc)적인 가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2. 둘째, ‘爲 + A + 所 + Vp’처럼 Vp 앞에 所가 첨가된 爲피동문의 경우에 爲를 전치사로 읽으면, A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爲에 종속된다. 그러면 문장 전체 수준에서 술어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는 남아 있는 ‘所 + Vp’인 셈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고전중국어에서 所는 대표적인 명사화표지 중 하나이다. 따라서 ‘所 + Vp’는 명사구로 이해되며, 이에 따라 ‘爲 + A + 所 + Vp’는 일종의 명사술어문인 셈이다. 반면에 보다 오래된 형태인 ‘爲 + A + Vp’는, 爲를 전치사로 보는 진영에서는, 동사술어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爲수동문의 爲를 전치사로 읽고자 한다면, 동사술어문에서 명사술어문으로 문장의 성격이 왜 전환되었는지 설명을 주거나, 혹은 ‘所 + Vp’가 명사구가 아니라 동사구라고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sup>10)</sup> 그러나 어느 쪽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처

9) Outline 48쪽 참조.

10) 5.3의 논의가 맞다면 ‘所 + 동사’가 명사구가 아닌 동사구로 이해될 소지가 생긴다. 그러나 5.3의 논의는 爲가 계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爲를 전치사



럼 보인다.

2.3. 셋째, 爲피동문의 爲가 영어 수동문의 by처럼 행위자 A를 유도하는 전치사라고 보면, 이 ‘爲 + A’의 위치가 왜 하필 Vp 앞으로 한정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초점을 받느냐 여부에 따라 수단의 전치사 이가 이끄는 구가 동사 앞이나 혹은 뒤로 가는 경우가 있다.<sup>11)</sup> 따라서 초점 여부 등등 정보구조에 입각하여 이 爲의 경우를 해명해볼 수도 있겠다. 즉 ‘爲 + A’가 오직 Vp 앞에만 위치하는 것은 피동문의 본성상 문장의 초점이 Vp에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53번 예문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처럼 행위자가 전치사 於에 의해 유도되는 보다 단순한 형태의 피동문에는 적용되기 어렵기에 보편적인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나아가 爲를 전치사로 고집하면, ‘爲 + A + Vp’ 유형의 피동문에서는 왜 전치사를 於가 아니라 爲를 쓰는지 또 ‘Vp + 於 + A’ 유형의 피동문에서는 또 전치사를 爲가 아닌 於만 쓰는지에 대해 해명을 해야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2.4. 넷째, 爲피동문의 爲를 전치사로 보기 어려운 마지막 통사적 증거로는 A가 의문사인 예문 嫗子爲何見殺<sup>12)</sup> ‘할머니 자식은 무엇한테 살해

---

로 보는 진영에서는 가져다 쓰기가 어렵다.

11) Outline 47쪽~48쪽 참조.

12) 이는 『論衡』 「紀妖」의 다음 대목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로, 유방과 항우의 패권 경쟁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고로서, 항우를 상징하는 큰 뱀을 유방이 베어 죽이는 스토리이다.

漢高皇帝以秦始皇崩之歲, 爲泗上亭長, 送徒至驪山, 徒多道亡, 因縱所將徒, 遂行不還, 被酒, 夜經澤中, 令一人居前. 前者還報曰: “前有大地當道, 願還.” 高祖醉曰:

당한 겁니까?’을 들 수 있다. 이 예문에서 결정적인 것은 의문사 何가 爲의 앞이 아닌 뒤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 예문이 爲피동문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爲피동문에서 爲가 전치사라고 한다면, 전치사와 의문사 목적어의 일반적인 어순에 따라 해당 예문이 媼子何爲見殺였어야 했다. 그러나 주어진 예문의 어순이 媼子爲何見殺이다. 의문사 목적어가 도치되지 않는 전치사 於의 경우<sup>13)</sup>와는 달리 전치사 爲는, 계사로 사용되어 그 후행성분이 목적어라기보단 보어로 이해되는 경우<sup>14)</sup>를 제외하면, 의문사 목적어가 爲 앞으로 도치된다. 따라서 또 다시 예외사항으로서 애드호크 가설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면 爲피동문의 爲가 전치사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의문사 何와의 상대적 어순 관계에 기댄 이 논증은 최소한 다음 3가지 선결조건에 기대고 있다. (a) 해당 문장이 爲피동문의 하나의 변이형태여야 한다. (b) 의문사 도치가 일어난 것이 확실하다. (c) 후한대에 쓰여진 이 글이 고전중국어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a)에 대해서는, 동일 저자가 다른 대목에서도 ‘爲 + 見 + Vp’ 형태의 구문을 사용하며(地火不爲見射而滅, 天火何爲見射而去 『論衡』 「感虛」) 이 구문 역시 맥락상 피동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통해 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b)에 대해서는 각주 12번의 밑줄 친 두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저자는 何爲와 爲何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는 담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사

---

“壯士行，何畏。”乃前，拔劍擊斬地，地遂分兩，徑開。行數里，醉因臥。高祖後人至地所，有一老媼夜哭之。人曰：“媼何爲哭？”媼曰：“人殺吳子。”人曰：“媼子爲何見殺？”媼曰：“吳子，白帝子，化爲蛇，當徑。今者，赤帝子斬之，故哭。”人以媼爲妖言，因欲笞之。媼因忽不見。何謂也？

13) Outline 94쪽 참조.

14) Outline 20쪽 참조.

례보다는 고전중국어 시기의 문헌이나 최소 전한 초기에 기록된 문헌 속에서 爲피동문의 행위자가 의문사로 나타나는 경우를 찾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의문사를 포함한 爲피동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2.5 이상에서 살펴본 4가지 현상 외에도, 爲피동문의 爲를 전치사로 간주할 경우 ‘爲 + Vp + 於 + A’(예문: 多出兵則晉楚爲制於秦 『전국책』 「진책」 「형산지사」)라든가 아니면 이것과 동치인 ‘爲 + Vp + 焉’(예문: 左司馬戍及息而還, 敗吳師于雍澨, 傷, 初司馬臣闔廬, 故恥爲禽焉 『춘추 좌씨전』 「정공」 4년) 같은 사례들에 대해서 다만 이것들은 爲피동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방식의 설명 밖에는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대응은, 비록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생산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 따라, 비록 폴리블랭크 자신의 설명 자체에는 비록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주장처럼 爲피동문의 爲를 전치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앞서 각주6에서 2.4.의 논증이 성립한다면 爲는 계사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서 2.에서 폴리블랭크식 소거법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 중에서, 爲피동문의 爲가 (1) 전치사, (2) 2항계사, (3) 3항계사 중 하나로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절에서는 선택지 (2), 즉 爲피동문의 爲를 2항계사로 읽을 가능성이 과연 성공적으로 배제되는지 검토하겠다.

3. 앞서 폴리블랭크는 爲피동문의 A와 Vp의 관계에 대해 전자가 후자에 대한 소유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그 증거로 양자 사이

에 관형격조사 之가 삽입된 경우 내지 그것을 소유격 대명사 其로 대체한 ‘其 + Vp’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sup>15)</sup> 그러나 폴리블랭크의 소견을 뒤짚는 사례가 드물지만 발견된다. 이를테면 예문 員不忍稱疾辟易以見王之親爲越之擒也 ‘저(=신서)는 칭병하고 물러나 있다가 왕께서 몸소 월나라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국어』 「오어」) 및 예문 遂爲周氏之禽 ‘마침내 주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관자』 「칠신칠주」), 나아가 후한대의 것이긴 하나 예문 南陽之宰而爲越王之擒 ‘[나] 남양의 재상이 월왕에게 사로잡혔구나’ (『오월춘추』 「구천별오외전」 구천 25년)은 모두 ‘爲 + A + 之 + 擒’의 형태를 띠고 있어 ‘爲 + A + 之 + Vp’ 유형의 爲피동문이라고 규정할 법 하다. 더더군다나 많은 문헌에서 擒(=禽)의 용례가 ‘사로잡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16)</sup> 여기서의 擒을 명사나 혹은 명사로 파생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폴리블랭크는 所가 삽입된 보다 후대의 ‘爲 + A + 所 + Vp’ 유형의 爲피동문에 대해서도 A가 所 + Vp에 대한 소유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양자 사이에도 관형격조사 之가 삽입된 경우 내지 그것을 소유격 대명사 其로 대체한 ‘其 + 所 + Vp’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17)</sup>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반례가 발견된다. 예문 凡國

15) Outline 37쪽 참조.

16) 『한어대사전』 擒항목의 표제어 해석과 예문은 모두 동사로 이해된다. 『漢語大詞典』 6권, 漢語大詞典出版社, 1992~, 883~884쪽 참조.

17) Outline 37쪽 참조. 여기서 저자는 爲피동문에 所가 첨가되는 시점을 전한 초라고 다소 조심스럽게 규정하나, 『순자』나 『장자』 같은 전국 후기 문헌에서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형태의 ‘爲 + A + 所 + B’ 구문이 등장하기에 所의 첨가 시점을 좀 더 앞으로 산정할 만하다. 비슷한 조심성이 是의 계사화 시점에 대해 언급하는 Outline 17쪽에서도 발견된다.

有三制, 有制人者, 有爲人之所制者, 有不能制人, 人亦不能制者 ‘모든 나라에 세 가지 유형의 통제가 있으니, 남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고, 남들에게 통제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남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남들 역시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관자』「추언」)의 경우, 앞서擒의 경우와 비슷하게 순수한 타동사로 간주될 법한 制가 등장하기에 ‘爲 + A + 之 + 所 + Vp’ 유형 역시 爲피동문에 속한다고 주장할 만하다.

물론 『관자』의 경우 문헌의 성립 시기가 선결문제로 남아 있고 또 『국어』 「오어」 및 『오월춘추』는 여러 측면에서 남방방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되지 않는다면 ‘爲 + A + 之 + Vp’ 내지 ‘爲 + A + 之 + 所 + Vp’ 유형의 爲피동문을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의 존재는 爲피동문의 유형이 ‘爲 + A + Vp’ / ‘爲 + A + 所 + Vp’ / ‘爲 + Vp’ / ‘爲 + 所 + Vp’ 4종 뿐이라는 폴리블랭크식의 한정이 과연 충분히 합리적인 것인지 재검토해볼 이유를 제공해준다. 게다가 시간적인 제한 및 특히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爲 + A + 之 + Vp’ 유형을 爲피동문의 한 유형으로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면, 폴리블랭크 자신이 인정하는 爲피동문의 4가지 유형도 얼마만큼 일반화된 것인지 역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 애초에 오랜 시기 동안 방대한 지역에서, 때로는 고립된 채, 발달한 언어들을 ‘고전중국어’라는 단칭명사로 묶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한데 묶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爲 + A + 之 + Vp’ 유형이나 ‘爲 + A + 之 + 所 + Vp’ 유형처럼 전형적이지 못한 변방 사례들까지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혹은 그것이 힘들 경우 최소한 배제의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폴리블랭크가 선택지 (2), 즉 爲피동문의 爲를 2항계사로 읽을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배제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이제는 1.에서 검토를 미루어 두었던 것, 즉 爲피동문을 여격접어문으로 간주할 때 잘 해명이 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爲피동문의 한 사례로 거론한 예문 將爲三軍獲이 폴리블랭크의 제안대로 여격접어문이라면, 三軍이 바로 간접목적어인 셈이다. 이 지점은 그의 여격접어문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4.1. 三軍을 간접목적어로 읽는다고 할 때, 그 의미역은 무엇일까? 폴리블랭크는 *Outline* 37쪽에서 ‘You will be for the Three Armies [the Three Armies] capture [you].’라는 다소 기괴한 번역만 제공할 뿐 이때의 for의 의미역이 무엇인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간접목적어의 의미역은 본동사가 지시하는 행위의 수혜자나 수신자, 피탈자이며, 여기서 수혜자나 수신자는 영어단어 for이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의미들이기도 하다. 앞서 2.4 말미에서 爲를 ‘~이 되다’의 계사로 읽는 독해를 확정했기에, 여기서 爲…獲은 ‘잡힘이 된다 > 잡히게 된다’ 정도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잡힘이 된다 > 잡히게 된다’와 관련해 三軍은 수혜자나 수신자로 보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난점 때문에 爲피동문을 일종의 여격접어문으로 읽자는 폴리블랭크의 제안이 다소 엉뚱하게 들리는 것이다.

4.2. 앞서 본고에서도 爲피동문에서 爲와 Vp 사이에 등장하는 요소를 행위자(Agent)를 뜻하는 A로 지칭했으므로 三軍의 의미역을 행위자로 상정해볼 수도 있겠다. 즉 三軍이 獲의 행위자라는 이해이다. 이러한 독법이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폴리블랭크로서는 가기 곤란한 길이다. 왜

나하면 이런 식의 의미역 산정에서는 三軍이 본동사 爲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獲과 관련하는데, 이것이 함축하는 바 三軍이 爲의 목적어라기 보다는 獲의 한정어라는 통사적인 귀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爲를 3항동사가 아니라 2항동사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적어도 폴리블랭크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한편으로 78번 예문 臣聞之胡齧曰에 대해 之와 胡齧 사이에 於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폴리블랭크의 이해와는 다르게 생략된 전치사의 도움 없이 胡齧 자체가 온전히 간접목적어라고 한다면,<sup>18)</sup> 고전중국어에서도 간접목적어가 출처의 의미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영어단어 for이 제공할 수 있는 의미역이 아니기에 폴리블랭크 자신의 이해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중목적어 구문의 어순에 대한 폴리블랭크 자신의 설명과도 배치되기에 문제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76번 예문 奪之食의 경우처럼 간접목적어가 피탈자의 의미역을 제공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영어단어 for이 제공할 수 있는 의미역이 아니며,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爲피동문과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4.3 그렇다면 남는 것은 三軍을 원인 내지 기여자로 읽는 길이다. 즉 ‘三軍 때문에’로 읽는 것이다. 그러면 해당 피동구문의 의미를 잘 포착하면서도, 본동사 爲를 경유하는 식으로 三軍의 의미역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적어도 2가지 의문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의문은 원인 내지 기여자로서의 의미역 확장이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폴리블랭크에 추정에 따르면 82번 예문 求也爲季氏宰와 같

18) *Outline* 32쪽 참조.

이 동사 爲 ‘되다’가 3항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서 爲피동문이 유래되었는데,<sup>19)</sup> 그의 추정이 맞다면 이 예문의 季氏의 의미역과 앞 예문의 三軍의 의미역 사이에 모종의 연속성이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王可以殺人에서 可의 수동 타동사 보어 역할을 수행하는 이가 본래는 도구를 표시하는데 그치나 이 예문에서는 그 역할이 확장되어 행위자까지 표시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sup>20)</sup> 三軍의 의미역은 앞서 원인 내지 기여자로 추정해보았다. 한편 季氏의 의미역은 수혜자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즉 ‘염구가 재상이 되었는데, 그 혜택이 계씨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데 수혜자에서 원인 내지 기여자로의 확장 내지 발전은, 그 기제에 대한 해명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sup>21)</sup>

두 번째 의문은 고전중국어에서는 원인 내지 기여자 의미역이 본동사의 간접목적어로서보다는 이나 因과 같은 전치사의 목적어를 경유하여 구현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폴리블랭크 방식으로 읽은 爲피동문을 제외하고서는 본동사의 간접목적어가 원인 내지 기여자의 의미역을 나타내는 경우가 만약 고전중국어에 없다면, 爲피동문을 여격의 겸어문으로 읽고자 하는 그의 시도가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사례긴 하지만 간접목적어에 근접한 요소가 원인 내지 기여자의 의미역을 나타내는 경우가 발견된다. 39번 예문 百姓安之과 48번 예문 則苗淳然興之矣에서는 각각 형용사 安과 자동사 興이

19) Outline 33쪽 참조.

20) Outline 23~24쪽 참조.

21) 우리말 ‘에게’는 원인의 의미역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혜자에서 원인으로의 확장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난해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나아가 고전중국어에서 이러한 확장 과정을 재구성해보도록 영감을 주는 사례가 발견되는 것 같지도 않다.



지시하는 상태를 유발한 원인을 사격(oblique case)의 之로 지칭한다. 나아가 49번 예문 有司死者三十三人而民莫之死也에서는 之가 死의 이유 내지 목적을 지시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형용사나 자동사에 한정되긴 하나 모든 경우에 목적격 대명사 之가 사용되고 있고 또 의미상이 之가 직접목적어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목적어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두 번째 의문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5. 폴리블랭크가 爲피동문을 여격겸어문으로 읽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읽기를 통해서만 爲피동문의 문법화<sup>22)</sup>과정을 스케치해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爲피동문이 중국어에 애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爲를 사용하는 다른 구문에 기원을 두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역사적인 시야에서 이런 선언적(選言的) 기대 자체는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爲피동문이 전고전시기 여러 문헌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폴리블랭크의 기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1. 그러나 그의 여격겸어문 읽기에는 이것 말고 다른 전제도 놓여 있는 것 같다. 즉 爲피동문에서 爲는 본성상 3항동사라는 생각이 기저에 놓여 있는 것 같다. *Outline* 38쪽에서 爲피동문의 A가 생략될 수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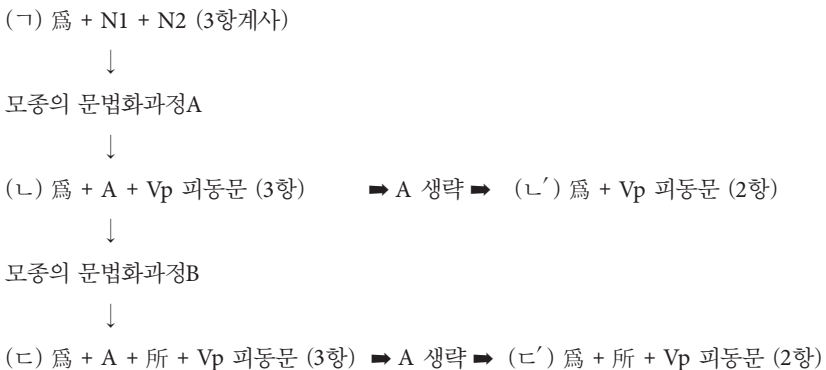
22) 문법화에 대한 개관으로는 Hopper and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참조.

한편 중국어를 문법화의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해명한 모범적인 연구로는 백은희, 「중국어 개체양사의 출현과 문법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 고찰」 『중국문학』 제 72집, 한국중국어학회, 2012, 349~376쪽 및 백은희, 「유형학적 관점에서 본 고대 중국어 관계절의 어순과 기능 특징」 『중국언어연구』 68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7, 89~119쪽 참조.

식의 진술을 하는 것이 단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爲의 3항성이 기본이라는 그의 전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爲 + Vp’는 ‘爲 + A + Vp’에서 A가 생략된 것일 뿐이라고 후자가 전자보다 기본적이라고 간주하는 셈이다. 그리고 3항성에 대한 이처럼 강한 정향 때문에, 본인이 의식을 했든 안 했든, ‘爲 + A + 之 + Vp’나 ‘爲 + A + 之 + 所 + Vp’와 같은 유형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논항이 3개 이면서도 2번째 논항과 3번째 논항이 주술관계로 번역될 수 있는 82번 예문 求也爲季氏宰와 같은 구문이 爲피동문으로 문법화되기에 적합하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5.2. 爲의 3항성을 기본으로 놓는 것은 다분히 사변의 결과라 이를 입증해줄 경험적인 증거를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그래도 그의 독법을 받아들였을 때, 문법화의 경로가 아래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그려진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분명히 매력적이다.

그림 1. 폴리블랭크가 상징하는 爲피동문의 문법화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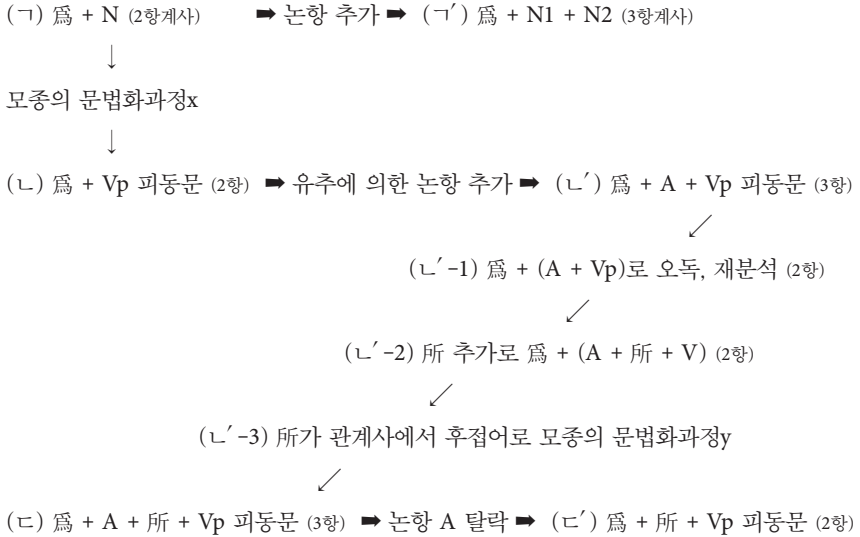
다만 여기서 가정된 두 차례의 문법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모종의 문법화과정 A는 앞서 4.3.에서 검토했듯이 수혜자 N1에서 기여자 A로의 의미역의 발전이 상당히 반직관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모종의 문법화과정B의 경우는, 앞서 2.2.에서 爲피동문의 爲를 전치사로 읽는 진영을 공격할 때 사용된 논리를 전유해, 所는 본성상 명사화표지이므로 이것이 Vp와 결합한 ‘所 + Vp’는 명사구가 되어버리기에 ‘爲 + A + 所 + Vp’ 전체는 동사술어문이 아닌 명사술어문이 되어버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5.3. 본고에서는, 비록 훨씬 복잡하고 또 여전히 모든 과정이 선명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폴리블랭크의 그림이 가지는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는 별도의 문법화 경로를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爲피동문의 문법화과정에 대해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면, 爲피동문을 여격겸어문으로 읽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2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ㄱ)에서 (ㄴ)으로 넘어가는 모종의 문법화과정x가 정확히 어떤 기제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추측하기 어렵지만, 해당 과정 자체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이기에 큰 결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5.3.1. 한편 (ㄱ)에서 (ㄱ')으로 이행하는 것은 논항 추가에 의한 것이다. ‘재상이 된다’는 의미만 전달할 요량이라면 爲率라고 하면 되고 이것이 바로 (ㄱ)의 사례이다. 그런데 ‘재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 결과 군주인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를 전달할 요량이라면, 季氏가 그 군주라 칠 경우, 爲季氏率가 되며 이것이 바로 (ㄱ')의 사례이다. 나

그림 2. 본고에서 제안하는 爲피동문의 문법화경로



아가 봉사를 받는 군주가 季氏인 것이 대화 당사자 사이에 자명하여 季氏 대신 대명사를 사용하면 爲之宰가 된다. 한편 똑같이 (ㄱ)에서 시작하지만, 단순히 ‘누군가의 재상이 된다’라는 의미만 전달할 것이라면, 논항의 추가 없이 다만 宰를 한정해주는 수식어 구조만 경유해도 된다. 그 결과가 爲季氏之宰인데, 이 경우 관형격조사 之는 곧잘 생략되기에 爲季氏宰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는 (ㄱ)과는 통사상 다르다. 季氏를 대명사로 교체한 결과가 爲其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항계사에서 논항을 추가하여 3항계사가 되는 과정은, 비록 우리에게 는 매우 낯설고 이상한 것이지만, 고전중국어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낯익은 그리고 큰 부담 없이 편리하게 밟을 수 있었던 경로로 보인다. 이러한 소견을 잘 보여주는 예문으로 祁奚爲中軍尉, 羊舌職佐之, 魏絳爲司

馬, 張老爲候奄, 鐸遏寇爲上軍尉, 籍偃爲之司馬 ‘기해는 中軍尉가 되고, 羊舌職이 그를 보좌하며, 魏絳이 司馬가 되고, 張老가 候奄이 되며, 鐸遏寇가 上軍尉가 되고, 籍偃은 그의 司馬가 된다’(『춘추좌씨전』 「성공」 18년)을 들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계사 爲가 필요에 따라 논항이 2개 뿐이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生太子建, 及即位, 使伍奢爲之師, 費無極爲少師(『춘추좌씨전』 「소공」 14년)을 들 수 있겠다.

5.3.2. 이러한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면 (L)에서 (L')로 넘어가는 과정이 보다 편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ㄱ) 爲宰에서 (ㄱ') 爲季氏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항 추가를 爲 + Vp 피동문에다가 유추적으로 적용한 결과 爲 + A + Vp 피동문이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4.3.에서 제기된 두 가지 의문과 관련해, 두 번째 의문은 폴리블랭크의 구도에서나 본고의 구도에서나 똑같이 제기되고 또, 4.3. 후반부의 해법을 받아들인다면, 똑같이 해결될 수 있기에 이 지점에서는 우위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폴리블랭크의 경우는 첫 번째 의문에 대해 대답해야 하지만 본고의 경우는 이 의문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ㄷ)에서 (ㄷ')로 넘어가는 과정이 기제상 논항 추가의 역전에 해당하는 논항 탈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고의 그림을 주장할 때에 드는 이론적 비용이 복잡한 외양에 비해 의외로 적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5.3.3. 이 그림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기도 한 (L')에서 (ㄷ)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爲 + A + Vp 피동문이 외양상의 일치 때문에 A를 Vp의 한정어로 오독되는 방식의 재분석이 발생

다. 전자는 A를 대명사화할 경우 爲 + 之 + Vp가 되지만 후자는 爲 + 其 + Vp이 되기에 논항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까지가 ( $L' - 1$ )이다. 일단 이런 식의 오독이 언중 사이에 유포되면 A + Vp에 所가 추가되는 다음 과정이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A가 爲와의 관계를 끊고 Vp의 주격소유격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비슷한 통사적 습관을 가진 所 관계구문에 쉽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중국어의 관계구문 所 + V가 대부분의 경우 所가 V의 목적어를 지시하며 이 관계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所 앞에 소유격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고전중국어에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기에,<sup>23)</sup>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爲 + (A + Vp) 구문이 통사적으로 확고한 상태에 있는 所관계구문에 일종의 삼투압 원리에 의해 동화되어 A + Vp가 A + 所 + V로 이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두 번째 동사의 수동성은 관계사 所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Vp가 아니라 V가 된다. 이상의 이행 과정이 시간의 힘으로 망각되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얻어진 문형 爲 + (A + 所 + V)는 문법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고 사용하기에 꽤 편리하다. 여기까지가 ( $L' - 2$ )이다.<sup>24)</sup>

5.3.4. 다음 과정 ( $L' - 3$ )은 주어진 爲 + (A + 所 + V)에서 관계구문 A + 所 + V를 지탱하고 있던 관계사 所가 모정의 문법화과정을 거침에 따라 더 이상 관계구문을 형성하지 못하고 단지 V의 후접어(proclitic)가 되어버리는 것이다.<sup>25)</sup> 단 관계사 所의 통상적인 역할이 후행 동사의 목

23) Outline 68쪽 참조.

24) 이런 식의 단계적인 오독 각각은 Outline 37쪽에서 폴리블랭크가 금지하고 있기도 하여 다소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25) 『한어대사전』 所항목 15-(2)-a번에 따르면 조사 所가 개사 爲와 함께 쓰여 어기

적어였었다는 사실이 일부 잔존하여, 후접어 所 + V이 Vp와 등가를 이루게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所가 접어화되어 A와 所 + V가 각기 본동사 爲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익숙한 爲 + A + 所 + V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5.3.5. 이상에서 본고의 그려본 爲피동문의 전개 과정은, 비록 다분히 시론적이고 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긴 하지만, 2가지 측면에서 폴리블랭크의 그림보다 포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所의 문법화까지 시야에 두고 爲피동문의 전개 양상을 그려봤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고, 폴리블랭크가 누락하거나 혹은 무시한 ‘爲 + A + 之 + Vp’도 爲피동문의 전개에 기여한 것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 측면의 포괄성은 ‘爲 + Vp + 於 + A’나 ‘爲 + A + 見 + Vp’ 같은 형태들 역시 이 그림에 들어올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훨씬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본고의 그림은 각 단계를 세분화한 다음에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 기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이론적 검토의 장으로 내놓고 있다.

---

를 표시한다고 한다. 여기서 所를 대사(代詞)로 보지 않고 조사(助詞)로 보는 점이 본고에서 爲피동문에 부가되는 所를 관계사가 아닌 후접어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생각된다. 한편 같은 항목 15-(2)-b에서 마찬가지로 조사로 소개되는 唯…所…(예문: 唯力所及 『국어』 「진어」)의 所 역시 후접어로 문법화된 결과로 볼 소지가 있다. 『漢語大詞典』, 7권 漢語大詞典出版社, 1992, 348~355쪽 참조.

## 참고문헌

『管子』

『國語』

『論衡』

『吳越春秋』

『戰國策』

『春秋左氏傳』

Edwin G. Pulleyblank,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95.

Hopper and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2.

에드윈 풀리블랭크 지음, 양세욱 옮김,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궁리, 2005.

백은희, 「중국어 개체양사의 출현과 문법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 고찰」 『중국문학』 제72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백은희, 「유형학적 관점에서 본 고대 중국어 관계절의 어순과 기능 특징」 『중국언어연구』 68권, 한국중국어학회, 2017.